

標幽賦의 海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

孫榮峻*·文振榮*·林鍾國**

The Literatual Study on the Sea Points in PYOYUBU.

Young-Jun Son, Jin-Young Moon, Jong-Kook Lim

Dongguk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Dept.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ies was to elucidate the meaning, theoretical propriety and use of the Sea points in PYOYUBU.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We reached a conclusion that Sea points, that is to say Xuehai(SP₁₀), Xiaohai(SL₆), Shaohai(HT₃), Zhaohai(KI₆), Qihai (CV₆) were gathering places of meridian energy. And the remedial function of Sea points against visera and bowel disease was closely connected with it's meridian pointological naming. Besides the remedial function of Sea points like this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ases in literature cited.

I. 緒 論

臉穴이란 體表와 經絡, 臟腑 相通의 點이고 脈氣所發의 孔隙이며, 또한 鍼灸施術의 部位 인데 十四經穴과 經外奇穴, 阿是穴로 構成되어 있다. 또한 臉穴에는 各各 一定한 部位와 名稱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氣血所發各有處名”이라 하였고,

孫思邈은《千金翼方》에서 “凡諸孔穴 名不徒設 皆有深意”라 하였다. 그리고 大多數의 穴名은 經穴의 位置의인 特徵 및 效能의인 特徵 등을 水流와 山谷, 生物과 體型, 居處와 活動, 藏象과 功能, 天象과 位置 等과 같은 類에 比較함으로써 命名되었다고 하였다.²⁾

醫學에 利用된 歌賦는 대다수가 元, 明, 靑代에 作成되었고 本草, 蕩液, 鍼灸, 診斷 等의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經穴學專攻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經穴學教室 主任教授

多様な分野에서 폭 넓게 活用되어 왔으며 특히 鍼灸分野에 該當하는 歌賦는 經絡, 臟穴, 刺灸手法, 辨症選穴 및 古代傳統選穴法 等에 대한 內容을 包括하고 있다. 이러한 鍼灸歌賦 중《鍼灸大成》의 標幽賦¹¹⁾에는 “豈不聞 臟腑病, 而求門, 海, 俞, 募之微”라 하여 臟腑病에 對한 治療穴을 選擇함에 있어서 門, 海, 俞, 募의 四穴에 對한 重要性을 言及하였으며, 이 중 經氣所歸之處로서의 海穴은 水流에 比較한 命名法에 該當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論者는 標幽賦에서 提示된 海穴의 機能에 대한 理論的 妥當性을 檢討하기 위해 歷代 文獻別로 海穴의 主治, 配穴 및 穴性을 調査하고 이를 海穴의 穴名學的인 意義와 比較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資料 및 方法

1. 研究資料

(1) 海穴의 意義와 機能에 關한 研究

本 研究에서는 海穴의 意義와 機能에 關하여 《鍼灸大成》^{11,13)}에 收錄된 標幽賦 중의 “豈不聞 臟腑病, 而求門, 海, 俞, 募之微”를 資料로 調査하였다.

(2) 四海의 意義에 關한 研究

四海의 意義에 關하여 本 研究에서는 《靈樞·海論》^{12,14)}에 收錄된 內容을 資料로 調査하였다.

(3) 海穴의 穴性 및 主治에 關한 文獻資料

海穴의 穴性 및 主治에 關하여 本 研究에서는 歷代의 代表的인 鍼灸書, 즉 《黃帝內經·靈樞》, 《鍼灸甲乙經》, 《千金方》, 《鍼灸資生經》, 《鍼灸聚英》, 《鍼灸大成》, 《鍼灸集成》, 《類經圖翼》, 《醫學入門》, 《鍼灸穴名解》, 《精解鍼灸學》, 《最新針灸學》, 《鍼灸治療學》의 內容을 資料로 調査하였다.

2. 研究方法

本 研究에서는 《黃帝內經·靈樞》에 收錄된 四海에 關한 內容과 標幽賦의 海穴에 關한 原文中에서 海의 穴名學的인 意義를 調査하고, 海穴을 少海, 血海, 小海, 氣海, 照海穴로 나누어 各各의 穴性 및 主治를 文獻別로 調査하여 이를 穴名學的인 意義와 比較함으로써 海穴이 臟腑病에 選穴될 수 있는 理論的 妥當性을 考察하였다.

III. 本 論

1. 臟腑病과 經絡病에 關한 標幽賦의 配穴 類型

(1) 臟腑病

全身의 臟穴 중에서 “門”으로 命名된 穴과 “海”로 命名된 穴은 各各 經氣出入之門戶로 經氣所歸之處를 意味하며, 이들 臟穴은 各經의 病에 對하여 顯著한 治療效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臟腑經氣가 輸轉되는 背俞穴과 臟腑經氣가 聚集하는 腹募穴을 鍼灸로써 治療하면 더욱 效果가 顯著하며 十四經 중의 門, 海, 俞, 募穴은 다음과 같다. (Table. I)

Table. I 臟腑病 配穴表

類 別	俞 穴	有 效 之 因	穴數	
門	頭	耳門, 啞門	經氣出入之門戶	22
	上肢	郄門, 液門, 神門		
	下肢	箕門, 衝門, 殷門, 金門		
	胸	關門, 滑肉門, 雲門, 章門		
	腹	幽門, 石門, 京門, 期門, 梁門		
	背	魂門, 育門, 風門, 命門		
海	血海, 少海, 照海, 小海, 氣海	經氣之所歸	5	
俞	肝俞, 心俞, 脾俞, 肺俞, 腎俞, 厥陰俞, 膽俞, 胃俞, 膀胱俞, 大腸俞, 小腸俞, 三焦俞	臟腑經氣 輸轉之處	12	
募	期門(肝募), 巨闕(心募) 章門(脾募), 中府(肺募) 京門(腎募), 膻中(心包募) 日月(膽募), 中脘(胃募) 中極(膀胱募), 天樞(大腸募) 關元(小腸募), 石門(三焦募)	經氣聚集之處	12	

(2) 經絡病

原이라고 하는 것은 十二經의 原을 말하며, 別은 陽別을 말하며, 交는 陰交를 말하며, 會는

八會를 말한다. 經絡血氣가 凝結不通되었을 때 原, 別, 交, 會의 穴을 取하여 刺하여야 한다. (Table. II)

Table. II 經絡病 配穴表

八 會 穴	原 穴
章門(臟會) 中脘(腑會) 膻中(氣會)	太衝(肝), 神門(心), 太白(脾)
膈俞(血會) 陽陵泉(筋會) 太淵(脈會)	太淵(肺), 太溪(腎), 大陵(心包)
大杼(骨會) 絕骨(髓會)	丘墟(膽), 腕骨(小腸), 衝陽(胃)
	合谷(大腸), 京骨(膀胱), 陽池(三焦)

2. 《靈樞·海論》의 四海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于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于大杼, 下出于巨虛之上下廉. 膻中者爲氣之海, 其輸上在于柱

骨之上下, 前在于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于其蓋, 下在風府.”

3. 海穴의 主治 및 穴性

(1) 少海

少海穴은 疏心氣 清包絡 寧神志 化痰涎¹⁴⁾ 寧神 通絡¹⁵⁾ 寧心 安神²¹⁾의 穴性을 가지며,

또한 風眩頭痛 瘧背脊振寒 項痛引肘腋 腰痛引少腹 四肢不舉²³⁾, 寒熱齒痛 目眩 發狂 癩癩 羊鳴 嘔吐涎沫 項不得回 頭風疼痛 氣逆 瘧癘 肘臂腋脇痛 攣不舉 寒熱齒齲痛 目眩發狂 嘔吐涎沫 項不得回顧¹⁰⁾ 肘攣腋脇下痛 四肢不得舉 齒寒腦風 頭痛氣逆 噫噎^{11,13)} 瘧癘 心疼 手顫健忘 瘡腫振寒⁹⁾ 寒熱齒痛 目眩 發狂 癩癩 羊鳴 嘔吐涎沫 項不得回 頭風疼痛 氣逆 瘧癘 肘臂腋脇痛 攣不舉¹²⁾ 頭痛 目黃 目眩 項強 齒痛 嘔吐 肩背肘腋脇引項痛 癩癩吐舌 瘧疾 寒熱汗出 四肢不舉⁹⁾ 心痛 暴暗 健忘 癩狂善笑 癩症 頭痛 目眩 腋脇痛 瘧癘 臂麻 手顫²¹⁾ 等の 主治를 가진 것으로 調査되었다.

(2) 血海

血海는 調血清血 宣通下焦¹⁴⁾ 和營 清熱¹⁵⁾ 健脾化濕 調經統血²¹⁾의 穴性을 가지며, 또한 婦人漏下 若血閉不通 逆氣脹²³⁾ 女子崩中漏下 月事不調 帶下 逆氣腹脹 腎藏風¹⁴⁾ 氣逆腹脹 女子漏下惡血 月事不調^{8,11,13)} 女子崩中漏下 月事不調 帶下 逆氣腹脹¹²⁾ 婦人漏下惡血 月事不調 逆氣腹脹²⁴⁾ 血漏下 血閉不通 月水不調 氣逆脹滿⁹⁾ 月經不調 痛經 經閉 崩漏 股內側痛 皮膚濕疹²¹⁾ 等の 主治를 가진 것으로 調査되었다.

(3) 小海

小海穴은 散太陽經邪 通小腸熱結 祛風氣 清神志¹⁴⁾ 疏肝安神 清熱消腫²¹⁾의 穴性을 가지며, 또한 風眩頭痛 瘧背脊振寒 項痛引肘脇 腰痛引少腹 四肢不舉²³⁾ 肘臂肩 膕頸項痛 寒熱齒根腫 風眩 瘡腫 小腹痛 五癩癩癢¹⁴⁾ 頸額肩 膕 肘臂外後廉痛 寒熱齒齲腫 風眩 頸項痛^{11,13)} 瘡腫振寒 肘腋痛腫 小腹痛 癩發羊鳴 戾頸癩癢狂走 頰腫不可回顧 肩似拔 髀似折 耳聾 目黃 頰腫⁶⁾ 肘臂肩膕頸項痛 寒熱齒根腫 風眩 瘡腫 小腹痛 五癩癩癢¹²⁾ 頭痛 項強 齲齒 斷腫 癩證吐舌 癩癢 癩狂 肘腋腫 瘡腫 小腹痛 寒瘧

風瘡⁹⁾ 寒熱齒齲腫 風眩 頸項痛 瘡腫振寒 肘腋腫 小腹痛 四肢不舉²⁴⁾ 癩狂 癩證 頭痛 目眩 耳聾 耳鳴 瘡腫 頰腫 頸項肩臂外後側痛²¹⁾ 等の 主治를 가진 것으로 調査되었다.

(4) 氣海

氣海穴은 調氣益元 培腎補虛 和營血 理經 帶溫下焦 祛濕濁¹⁴⁾ 調氣機 補腎虛¹⁵⁾ 益氣助陽 調經固精²¹⁾의 穴性을 가지며, 또한 少腹疝 臥善驚²³⁾ 下焦虛冷 上衝心腹 或爲嘔吐不止 或陽虛不足 驚恐不臥 奔豚七疝 小腸膀胱癥瘕結塊狀爲覆杯 臍下冷氣 陽脫欲死 陰證傷寒 卵縮 四肢厥冷 小便赤澁 羸瘦白濁 婦人赤白帶下 月事不調 產後惡露不止 繞臍痠痛 小兒遺尿 卒厥 厥氣上攻兩脇心痛 奄奄欲絕¹⁴⁾ 傷寒 飲水過多 腹脹腫 氣喘 心下痛 冷病 面赤 臌氣虛憊 眞氣不足 一切氣疾久不差 肌體羸瘦 四肢力弱 責豚七疝 小腸膀胱腎余 癥瘕結塊狀如覆杯 腹暴脹按之不下 臍下冷氣痛 中惡 脫陽欲死 陰症卵縮 四肢厥冷 大便不通 小便赤 卒心痛 婦人臨經行方 瘦瘠 崩中 赤白帶下 月事不調 產後惡露不止 繞臍痠痛 閃着腰疼 小兒遺尿⁹⁾ 臌氣虛憊 一切氣疾 小腹痛氣 遊行五臟 腹中切痛 冷氣衝心 驚不得臥 婦人惡露不止 繞臍疼痛 氣結成塊狀如覆杯 小便赤澁⁹⁾ 下焦虛冷 上衝心腹 或爲嘔吐不止 或陽虛不足 驚恐不臥 責豚七疝 小腸膀胱癥瘕結塊狀如覆杯 臍下冷氣 陽脫欲死 陰症傷寒 卵縮 四肢厥冷 小便赤澁 羸瘦白濁 婦人赤白帶下 月事不調 產後惡露不止 繞臍痠痛 小兒遺尿¹²⁾ 臍下冷氣上衝 心下氣結成塊狀如覆杯 小便赤澁 婦人月事不調 帶下崩中 因產惡露不止 繞臍痠痛²⁴⁾ 形體羸瘦 四肢乏力 水穀不化 繞臍腹痛 月經不調 痛經 經閉 崩漏 帶下泄瀉 疝氣 水腫 遺精 陽痿 氣喘²¹⁾ 等の 主治를 가진 것으로 調査되었다.

(5) 照海

照海穴은 疏通和營 泄火疏氣 清神志 利咽喉¹⁴⁾ 清熱 寧神 利咽喉¹⁵⁾ 調陰寧神 通調二陰¹⁶⁾의 穴性을 가지며 目痛引眦 少腹偏痛 背僵癢 癢 視昏 嗜臥 驚 善悲不樂如墜墮 汗不出 面塵黑病 飲不欲食 卒疝 少腹痛 目中赤痛 從內眦始 女子不下月水 婦人陰挺出 四肢淫溼 身悶 偏枯不能行 大風默默不知所痛 視如見星 溺黃 小腹熱 乾咽¹⁷⁾ 女人漏下赤白 四肢酸削 陰挺下血陰中腫 或痒澁清汁 女子不下月水 痺驚善悲不樂如墜墮 汗不出¹⁸⁾ 咽乾嘔吐 四肢懈惰嗜臥 善悲不樂 大風偏枯 半身不遂 久瘖 卒疝 腹中氣痛 小腹淋痛 陰挺出 月水不語¹⁹⁾ 咽乾 心悲不樂 四肢懈惰 久瘖 卒疝 嘔吐嗜臥²⁰⁾ 大風默默不知所痛視如見星 小腹痛 婦女經逆 四肢淫溼陰暴躁起或痒澁清汁 小腹偏痛 淋陰挺出 月水不調²¹⁾ 咽乾 嘔吐 四肢懈惰 嗜臥 善悲不樂 大風偏枯 半身不遂 久瘖 卒疝 腹中氣痛 小腹淋痛 陰挺出 月水不調²²⁾ 咽乾 四肢懈惰 善悲不樂 久瘖 卒疝 小腹痛 嘔吐 嗜臥 大風偏枯不遂 女子淋瀝 陰挺出²³⁾ 咽乾 四肢懈惰 善悲不樂 久瘖 卒疝 小腹痛 嘔吐 嗜臥 大風偏枯不遂 女子淋瀝 陰挺出 陰暴起疝 小腹痛熱而偏痛 大風默默不知所痛 視如不明²⁴⁾ 癩症夜發 嗜臥 驚恐不寧 月經不調 痛經 赤白帶下 陰挺 陰痒 疝氣 小便頻數 咽喉乾燥 目赤腫痛 脚氣 梅核氣²⁵⁾ 등의 主治를 가진 것으로 調査되었다.

IV. 考 察

標幽賦에서는 臟腑病과 經絡病을 나누어 각각 特別한 配穴原則을 提示하고 있는데, 喙海, 門, 俞, 募穴은 臟腑病의 治療에 選穴되고, 原, 別, 交, 會穴은 經絡病의 治療에 選穴된다고 하였다. 이 중 海穴의 理論的 妥當性을 檢討하기 爲하여 <靈樞·海論>중 四海의 意

味와 比較하여 “海”의 意義를 把握하고 또한 海字穴의 主治 및 穴性을 調査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靈樞·海論>에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于海 海有東西南北命曰四海…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以應四海也”라 하여 人體의 髓, 血, 氣, 水穀 四海를 自然界의 東西南北 四海에 比喩하고 있으며, 自然界의 四海는 十二經水의 匯合處이고 人體의 四海는 營衛氣血, 十二經脈의 匯合處라 說明하고 있다. 또한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于大杼 下出于巨虛之上下廉 膈中者爲氣之海 其輸上在于柱骨之上下 前在于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于其蓋 下在風府”라 하여 四海를 水穀之海, 十二經之海, 氣之海, 髓之海로 區分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氣機轉輸 部位인 腧穴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다. 이 중 水穀之海에 關하여 살펴보면 人身이 飲食水穀에서 氣를 받고 水穀은 口로 入하며 胃에서 藏하고 五臟氣를 養하므로 五臟六腑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化生된다고 하여 胃를 水穀之海라 하고, 氣機의 轉輸部位는 위로 少腹氣衝穴處에 있고, 아래로 足陽明經의 足三里穴處에 있다고 하였다. 血海 및 十二經之海에 關하여 살펴보면 十二經脈이 氣血匯聚하는 곳을 衝脈이라 하는데 衝脈은 腎下, 胞中에서 起하여 上下로 行하며 全身의 氣血을 滲灌하므로 衝脈을 血海라고 하였으며, 氣機의 轉輸部位는 위로 膀胱經의 大杼穴處에 있고, 아래로 胃經의 上巨虛, 下巨虛穴處에 있다고 하였다. 氣之海에 關하여 살펴보면 胸部는 大氣를 呼吸吐納하는 곳이고 또한 宗氣가 所在하는 곳으로 <靈樞·五味>에서는 “其大氣之轉而不行者 積于胸中 命曰氣海 出于肺 循喉咽 故呼即出 吸即入 天地之精氣 其大數常出三入一”이라 하여 膈中穴이 胸部

에 處해 있으므로 氣之海라 하였으며, 氣機轉輸部位는 위로 項部の 啞門과 大椎穴之間에 있으며, 앞으로 人迎穴處에 있다고 하였다. 髓之海에 關하여 楊上善은 “胃流津液滲入骨空 變而爲髓 頭中最多 故爲海也 是腎所生”이라 注說하여 모든 髓가 腦에 屬한다고 하였고, 氣機轉輸部位는 위로 頭部的 顛頂, 百會穴處에 있으며 아래로 項後的 風府穴處에 있다고 하였다. 以上の四海에 關한 說明에서 “海”는 共通的으로 百川匯聚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으며 水流가 江河를 流注하듯이 氣血이 經脈을 循環하여 匯聚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標幽賦는 金元時代 竇漢卿의 鍼灸名著인 《鍼經指南》의 卷首에 收錄되었는데 本書의 內容은 “首標幽賦 次定八穴之法 及棄塾宮圖”이라 하여 標幽賦를 重視하고 있으며, 그 外에 流注要賦, 六十六穴流注秘訣 등이 있다. 이들 著作의 原書는 比로 散失되었지만 그 中 玉龍歌 標幽賦 天星十一穴歌訣은 모두 後世의 鍼灸書에 保存되고 있는데, 本賦는 《普濟方》, 《鍼灸大全》, 《楊敬齋針灸全書》, 《針灸聚英》과 《類經附翼》等 明代醫學著作 中에 두루 轉載되어 있다.

특히 標幽賦에서는 緊疔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海穴의 重要性을 強調하였고, 또한 海穴의 意味를 經氣所歸之處라 定하고 있다. 全身의 腧穴 中 “海”로 命名된 穴은 모두 五個穴로 血海, 小海, 少海, 照海, 氣海이며 本論에서 調査된 各穴들의 主治, 穴性, 配穴과 穴名解, 그리고 所屬 經絡에서의 意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血海는 足太陰脾經의 旺氣가 發하는 곳으로, 氣血歸聚之海이며 婦人調經의 要穴이다. 《鍼灸穴名解》¹⁾에는 “治崩漏經帶, 以及男女其他血分諸病, 猶言治血症之淵海, 故名血海”라 하여 瘀血 등의 血病을 主管하는 穴이라 하

였다. 또한 《金鍼梅花詩鈔·血海條》¹⁰⁾에서는 “緣何血海動波瀾 統攝無權動行”이라 하여 血海가 血을 統攝하는 機能을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本穴의 主治症을 살펴보면 月經困亂, 子宮出血, 貧血, 子宮內膜炎 女子漏下惡血, 暴崩不止 등과 같은 諸血疾에 主된 效能이 있는 것으로 調査되었고, 其他의 皮膚濕疹, 蕁麻疹, 皮膚瘙癢症과 같은 皮膚病에도 使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金元四大家 中의 한 사람인 李東垣은 “女子漏下惡血, 月事不調, 暴崩不止, 多下水漿之物, 皆由飲食不節, 惑勞傷形體, 惑素有氣不足”이라 하였고, 《難經·第四十二難》¹¹⁾에는 “脾主養血 溫五臟”이라 하여 女子血病과 脾臟과의 相關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 關하여 《靈樞·經脈篇》¹²⁾에 記載되어 있는 足太陰脾經의 始動病, 所生病을 살펴보면 “始動即病舌本強, 食即嘔, 胃脘痛, 腹脹, 善噎, 得後與氣即快然如衰, 身體皆重, 是主脾所生病者,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痛, 漉, 癢, 泄, 水閉, 黃疸, 不能臥, 強立, 股膝內腫厥, 足大趾不用”이라 하여 主로 脾臟의 機能 失調를 主治하고 있는데 이는 血海穴이 血의 統攝機能 不調를 治療하는 것과 相當한 聯關性을 가짐을 알 수 있다.

少海는 一名 曲節이라고도 하며 手太陰經의 脈이 入하는 合穴이다. 《鍼灸穴名解》¹⁾에는 “所謂少者, 指少陰經言也. 其所治症爲表裏虛實寒熱以及七情志意等病, 如顛狂, 吐涎, 項強, 臂痛, 齒痛, 目眩, 頭風, 氣逆, 瘰癧等等, 即, ‘海’之舍意也”라 하여 本穴의 主治症이 極히 複雜하고 多經之病에 두루 미쳐 衆症을 治療한다고 解釋하고 있다. 實際로 少海의 主治症을 살펴보면 精神神經係 疾患, 肋間神經痛, 脊骨神經痛, 頭痛, 耳鳴, 眼充血, 蓄膿症, 瘰癧, 齒痛, 心臟病 등 매우 多樣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手少陰經의 始動病과 所生病

과도 有關한 것으로 《靈樞·經脈篇》³⁴⁾에서 “始動即病噎乾, 心痛, 渴而欲飲, 是爲臂厥,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이라 하여 心疾患 뿐만 아니라 手少陰經의 順行과도 密接한 여러 症狀들을 主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手少陰之合穴인 少海가 手少陰脈氣의 匯聚之處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小海는 手太陽經의 合穴이며 《鍼灸穴名解》⁷⁾에는 “本穴與少海雖不同經 而穴底極爲接近, 故名小海, 其治症亦甚複雜, 亦有匯治諸經各病意勢 猶江海之匯百川也.”라 하여 手少陰心經의 少海穴과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治療效果를 發揮함을 說明하고 있다. 本穴은 精神神經系 疾患, 頭痛, 齒根痛, 目眩, 耳聾, 目黃, 頰腫, 小腹痛, 脊骨神經痛, 頸項痛 等 多樣한 病症에 대하여 主治를 가지고 있다. 이는 手太陽小腸經의 始動病, 所生病과 有關한 것으로 《靈樞·經脈篇》³⁴⁾에는 “始動即病噎痛, 頰腫,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 是主液所生病者, 耳聾, 目黃, 頰腫, 頸項肩臑肘臂外後廉痛”이라 하여 小海穴의 主治症과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鍼灸學》²¹⁾에는 “喻小腸經脈氣至此猶如江河之水入海 故名小海”라 하여 手太陽小腸經의 合穴인 小海가 手太陽脈氣 匯聚之處임을 說明하고 있다.

足少陰腎經의 照海는 陰蹻脈의 起始部이며 一名 陰蹻라고도 한다. 여기서의 “照”는 “照, 其異體字 炤, 炤同昭, 含明顯之義”라고 하여 百川之所歸의 意味를 지닌 “海”와 合해서 “穴處脈氣明顯, 闊大如海, 故以爲名”이라 하였다.²¹⁾ 照海穴의 主治症을 살펴보면 喉痺, 咽乾, 目痛, 浮腫, 月經不調, 赤白帶下, 陰挺, 陰部搔痒症, 難産, 偏麻痺, 癩癩, 不眠 等으로 主로 婦人科 疾患에 多用되고 있으나 其他 精神神經障礙, 半身不遂, 氣管支炎, 中耳炎, 扁桃腺炎, 足關節疾患 等에도 選穴됨을 알 수

있다. 또한 足少陰腎經의 是動病, 所生病에 관하여 《靈樞·經脈篇》³⁴⁾에는 “是動即病飢不欲食, 面如漆柴, 咳唾即有血, 喝喝而喘, 坐而欲起, 目眩暈如無所見, 心如懸若飢狀, 氣不足即善恐, 心惕惕如人將捕之, 是爲骨厥, 是主腎所生病者,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噎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癰, 脊股內後廉痛, 痿厥, 嗜臥, 足下熱而痛.”라 하여 照海穴의 主治症과 相當한 聯關性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鍼灸穴名解》⁷⁾에는 “本穴治症極爲複雜, 猶海江之大, 包含細流也. 本穴爲陰經之陽穴. 治大風, 肢懈, 經逆不調, 久癰, 偏腹痛, 噎腫, 咽乾, 卒疝.”이라 하여 本穴의 主治症이 廣範圍함을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足少陰腎氣를 明顯하게 하는 百川之所歸라는 뜻의 照海는 陰蹻脈이 生하며, 足少陰脈氣의 歸聚處라 할 수 있다.

氣海는 “先天原氣匯聚之處”²¹⁾이라 하여 原氣의 變動이 集中하는 穴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銅人穴鍼灸圖經》²⁴⁾에는 “臍氣虛憊, 眞氣不足, 一切氣疾久不差”라 하여 氣海穴이 疾病恢復에 대하여 重要한 기능을 發揮함을 說明하고 있다. 氣海는 臍下에 위치하고 氣의 變動이 모이는 곳이므로 下氣海라는 別稱을 가지는 반면, 兩乳間에도 氣의 變動이 모이는 臍中穴이 있어서 이것을 上氣海라고 한다. 兩者가 모두 氣病과 關係가 있지만 氣海는 特히 腦·神經系 症狀, 즉 神經過敏, 心身症, 히스테리, 躁病, 鬱病 等の 病症에 대하여 主治效能을 가지며, 臍中穴은 呼吸器系 病의 治療에 多用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또한 氣海는 婦人病 및 泌尿器疾患에 效果가 있어서 膀胱炎이나 腎臟疾患, 不妊症, 子宮筋腫, 陰痿, 淋疾 等に 使用되며 特히 蟲垂炎의 治療에 顯著한 效果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鍼灸穴名解》⁷⁾에서는 “氣海處不作吸引 即中氣不能達於臍下, 男子腹呼吸, 全賴氣海爲之鼓

邊, 乃有吐納也...故養生家以本穴爲大氣所歸, 猶百川之匯者, 故名氣海.”라 하여 氣海가 “腹部納氣之根本”이며 全身百脈의 構通을 도와 氣之所至하고 血乃通之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標幽賦에서 海穴이 臟腑病의 治療에 選穴된 것은 海字穴이 百川匯聚하는 各經絡의 經氣所歸之處라는 점을 選穴의 理論的 根據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現在 臟腑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選穴의 原則은 主로 背俞穴과 腹募穴爲主로 국한되어 認識되고 있는데 反하여 標幽賦에서는 門字穴 二十二個와 海字穴 五個로 構成된 特定穴이 存在함을 示唆하고 있다.

IV. 結 論

標幽賦에서는 臟腑病의 治療에 관한 選穴에 있어서 普遍的으로 알려져 있는 腹募穴 및 背俞穴 外에도 門字穴과 海字穴을 言及하고 있는데 이 중 海字穴이 臟腑病에 主治를 가질 수 있는 理論的 妥當性을 檢證하고자 文獻에서 나타난 海의 根本的인 意味를 調査하고 海字穴 各各의 主治와 穴性을 調査한 結果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標幽賦에서 臟腑病을 治療함에 使用하는 海穴, 즉 血海, 少海, 小海, 照海, 氣海, 이 五個穴은 모두 各 經絡의 經氣所歸之處라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2. <靈樞·海論>에서 言及하고 있는 四海에서의 海의 意味와 標幽賦에서 臟腑病의 治療에 重要視되고 있는 海穴에서의 海의 意味는 “百川之匯”라는 意味로 相通함을 알 수 있었다.

3. 海字穴의 主治와 穴性에 關한 調査結果 및 海의 穴名學의 意義와 標幽賦에서 提示한 海字穴의 臟腑病에 對한 主治機能은 모두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臟腑病을 治療하기 위한 選穴原則에 있어서 主로 腹募穴과 背俞穴에 局限하여 活用할 것이 아니라, 標幽賦에서는 提示한 바와 같이 門字穴 二十二個 및 海字穴 五個의 特定穴이 存在하고 있음을 認識하고 이에 關한 研究가 더욱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參 考 文 獻

1.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成文化社, pp.114~119, p.123, 124, pp.280~283. 1990
2. 郭鶴春：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pp.268~271
3.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32~237, pp.2 41~244, pp.510~515. 1982
4.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74, 175. 1985.
5. 南京中醫學院中醫系：黃帝內經靈樞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2~105, p.107, 108, pp.233~237. 1986
6. 施土生：鍼灸歌賦校釋, 山西省, 山西科學教育出版社, p.207, 208. 1987
7. 鍼灸穴名解, 啓業書局, p.17, 18, 62, 67, 71, 72, 99
8. 高 武：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1, 42, 46, 47, 52, 80, 127, 156, 157. 1961
9. 李 挺：原本編註醫學入門(上), 서울, 南

- 山堂, p.271, 272, 274, 286, 305, 306. 1985
10. 周樹冬：金鍼梅花詩鈔，合肥，安徽科學技術出版社，p.162, 167, 168, 181, 185, 218, 219. 1982
 11. 楊繼洲：鍼灸大成校釋，서울，大成文化社，p.169, 170, 171, 191, 192, 193. 1993
 12. 寥潤鴻：鍼灸集成，北京，北京市中國書店，勉學堂經穴詳集卷三 p.35, 39, 44, 45；卷四 p.3, 44, 45. 1985
 13.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鍼灸大成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p.172, 174, pp. 193~195, p.793, 806, 817, 818, 869, 870, 954. 1984
 14. 林鍾國：鍼灸治療學，서울，集文堂，p.320, 330, 331, 341, 395, 396, 492. 1983
 15. 金定濟：最新鍼灸學，서울，成輔社，p.195, 248, 249, 274, 282, 283. 1979
 16. 楊維傑：鍼灸經緯，臺北，樂群文化事業有限公司，p.328, 332, 335, 336, pp.341~343, p.346, 347, 352, 353. 中華民國64年
 17. 崔容泰，李秀鎬：精解鍼灸學，서울，杏林出版，p.293, 306, 317, 318, 321, 322, 333, 341, 342, 427, 437, 438, 599, 608, 609. 1985
 18. 張介賓：類經圖翼，서울，成輔出版社，p. 206, 207, 210, 216, 245, 246, 291, 292. 1982
 19. 張介賓：張氏類經，서울，成輔出版社，p. 294, 295, 296. 1982
 20. 安榮基：經穴學叢書，서울，成輔社，p.236, 237, 266, 267, 298, 299, 448, 449, 682, 683. 1986
 21. 楊甲三：鍼灸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p. 47, 49, 51, 56, 106, 107, 185, 186, 204, 205, 341, 342, 352, 353, 401, 402. 1988
 22. 全國韓醫科大學校 鍼灸·經穴學教室 編著：鍼灸學(上)，서울，集文堂，p.175, pp. 180~181. 1988